

완도군, 해양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화 전환 ‘시동’

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
미역·톳 등 생산량 전국 대비 52%
산업여건 소비환경 변화 대응 목표
연구 단지 조성 민간 투자 유치 등

전라남도 완도군이 지난 24일 군청 상 황실에서 ‘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(2026~2030) 기본 계획 수립’ 착수 보고 회를 개최했다. 착수 보고회를 바탕으로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.

27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산 업 5개년 기본 계획은 완도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며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.

이를 통해 태동기에 있는 국내 해양바 이오산업의 권역별 추진 현황 등을 파악 하고 완도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기 반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.

해양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 예 상되는 미래 산업으로 핵심 원료인 해조 류는 해양바이오산업 원료별 시장 중 가 장 비중이 크고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분 야이다.

국내 시장에서 건강 기능 식품,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.

완도군은 김, 미역, 톳 등 해조류 생산 량이 전국 대비 52%를 차지하는 우리나 라 대표 수산 군으로 해조류산업을 육성 하고 있으나 원물 생산 또는 조미 가공 등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.

해양바이오산업 또는 건강 기능성 식 품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 이다.

이에 군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정책, 기 술, 시장, 투자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 고 산업 여건,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파 악하여 산업 형태를 고부가가치 산업으



지난 24일 완도군이 ‘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’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.

완도군 제공

로 전환하고자 한다.

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해 양바이오 등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완도 군을 전국 단위의 해조류 소재 공급 기지 로 구축하고자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조 성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 이다.

신우철 군수는 “무한한 잠재력을 가지 고 있는 해조류를 활용해 군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하겠다”며 “해조류산업과 관련 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해양바 이오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”고 말했 다.

완도=정태영 기자

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 재개장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마련

전라남도 해남군은 오는 5월 8일 구제 역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해남진도축 협 가축시장을 재개장한다고 27일 밝혔 다.

관내 송아지 몰랑 해소와 축산농가 실 질소득 향상을 위해 5월 10일 특별 가축 시장을 개장한다.

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구제역이 발 생함에 따라 일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방역 체계와 시설 전반을 정비하고 2개월 여 만에 재개장하게 됐다.

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구제역 발생 직후 가축시장 청소·세척·소독 조치를 마 쳤다.

구제역 기간 동안 원활한 가축 거래를 위해 군에서 지원한 LED 전광판, 통합 제어시스템 등도 구축해 가축 경매 응찰· 스마트 경매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한 스 마트 가축시장 플랫폼도 마련했다.

해남=전연수 기자

105억원 무이자 자금 지원 협약 목포농협·신안 7개 지역농협

목포농협(조합장 박정수)은 지난 24 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‘목포·신안 통 합발전’과 ‘도시농협-농촌농협간 상생 협력’을 위해 신안관내 7개 지역농협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농촌 농협 의 경영안정과 조합원 영농 지원을 위해 출하선급금 7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했 다고 27일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목포와 신안 지역 농협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 류를 통한 통합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개 최했다.

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, 안종팔 농협 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, 목포시·신 안군 관계자 및 신안지역 7개 농협 조합 장과 목포농협 임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 석해 도·농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.

목포농협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 해 신안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농촌농협 4 곳에도 무이자 자금 35억원을 추가로 지 원해 총 105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단 행하며 농촌농협의 경영 안정과 조합원 영농 지원에 앞장섰다. 목포=정기찬 기자



무안군 어르신들이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. 무안군은 5월21일까지 4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을 대상으로 ‘한방에 심(心)쿵’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한다.

무안군 제공

무안군, ‘한방에 심(心)쿵’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

전라남도 무안군이 5월21일까지 관내 4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우울감 감소와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‘한방에 심(心)쿵’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

27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 대인의 만성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, 신

체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소를 마 련됐다.

우울감 감소를 위한 한의학 상담과 치 유 활동을 비롯해 뇌호흡, 뇌체조 운동, 명상, 공예요법, 스트레칭, 테이핑 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.

뇌호흡과 뇌체조 운동은 집중력 향상

과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명상과 공예요법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 존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.

바른자세 스트레칭과 테이핑 요법은 근골격계 통증예방과 자세 교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무안=김행언 기자

목포상의, ‘전남 서부권 발전 정책’ 대선공약 반영 촉구

‘K-해양 혁신밸리’ 조성을

목포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정치권에 전남 서부권 미래 발전 정책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.

27일 목포상의에 따르면 성명에서 “전 반적인 지방소멸의 흐름 속에서 전남 서 부권은 1차산업 중심의 고착화된 산업구 조와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, 정주여건의 한계로 지역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 고 있다”며 “일자리·교육·의료·문화 인프 라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최소한의 발 전을 위한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”고 지 적했다.

그러면서 “전남 서남권이 다시 일어서 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



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절 실하다”고 밝혔다.

목포상의는 AI·재생에너지 기반의 첨 단산업 육성을 위한 ‘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지역 혁신거점’ 조성, 해군 MRO 수리능력 보강 및 한미 해양·방산 협력확 대에 대응하기 위한 ‘K-해양 방위산업

혁신밸리’ 조성을 요구했다.

또 국가 농·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‘AI 첨단 농·축산업 융복 합지구’ 조성, 무안국제공항의 동북아대 표 관문공항으로 육성과 조공역 교통망 (영암-광주 고속도로, 진도-영암 고속도 로, 서해안 철도건설 등) 확충 등을 촉구 했다.

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“전남 서부권 은 미래를 향한 대약진을 힘차게 준비하 고 있다”면서 “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 전의 열쇠가 될 5가지 전남 서부권 핵심 과제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서 관심을 갖고 공약에 반영해 주길 바 랐다”고 말했다.

목포=정기찬 기자

‘문화가 있는 날’ 관람료 할인 확대 무안작은영화관

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작은영화관은 누 구나 더 손쉽게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관람료 할인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‘문화 가 있는 날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고 27일 밝혔다.

기존 일반 관람료는 7000원으로 대형 극장 대비 약 60~70% 수준으로 저렴했 지만 연령대나 단체 관람객을 고려한 별 도 할인 혜택은 없었다.

이에 무안군은 지난 22일부터 더욱 다 양한 계층의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영화 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소년·경로·유공자 등 대상 1인당 6000원, 15인 이상 단체 1 인당 6000원, 50인 이상 단체 1인당 4000원 요금을 적용했다.

5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‘문화가 있는 날’로 지정해 모든 관람객 에게 1000원 요금 관람 혜택을 제공한 다.

이 프로그램은 현장 예매 및 선착순 운 영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극장을 방문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.

김산 군수는 “앞으로도 무안작은영화 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 다”고 밝혔다.

무안=김행언 기자

공공의대 설립 정책 ‘환영’ 국립목포대학교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합리화 방안에 대해 국립목포대학교(총장 송하철)는 전라남도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의과대 학 설립의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하며 환영의 뜻을 표 했다.

27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전라 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낙후지역 필수의료와 산 업재해 등 응급의료 대응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.

이러한 전남 지역의 절박한 의료 현실 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 립순천대학교는 전남 동서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‘국립대 학 통합’ 합의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 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. 이는 특정 지역이나 대학의 유불리 를 떠나 18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과 생 명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었 다는게 국립목포대학교의 설명이다.

이재명 대표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 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라남도의 현실 과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.

범국가적인 필수 의료인력과 지역의료 를 책임질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낙 후된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다.

국립목포대학교는 이러한 의료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전남 국립의 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 구 한다고 밝혔다.

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“앞으 로도 국립순천대,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의료계,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전남 국 립의대 설립이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목포=정기찬 기자